



보배섬 신안의 비경 자전거 타며 즐긴다

2023 신안 자전거 투어
6월 4일 비금면·도초면

전국 자전거 동호인 400여명 참가
이제돌기념관~가산선착장 50km
명사십리·하트해변 등 경유
경품추첨 자전거 용품 등도 제공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라이딩하면서 보배섬 신안의 비경을 만끽하는 행사가 열린다.

1004스포츠클럽이 주최하고 더바이크가 운영하는 '2023 신안 자전거 투어' 행사가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안 비금·도초면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자전거 동호인 40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코로나 엔데믹을 계기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전거 동호인이 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인 신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고려도 있다.

대회 참가자 200여명은 개막 하루 전 신안에서 숙박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자전거 동호인 등이 즐기는 '열린 대회'로 치러진다.

비경정 투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면서 비금과 도초의 자연을 호흡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섬의 대표적인 명소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50km)가 짜여졌다.

참가자들은 개막 장소인 이제돌기념관에서 출발해 명사십리해변~하트해변~환상의 정원~수국공원(폐회)~가산선착장을 달린다.

명사십리해변은 폭 30m 모래사장이 4km 이상 이어져 다도해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신안군 안좌도 일대에서 열린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올해 열리는 '2023 신안 자전거 투어'는 다음달 4일 신안 비금·도초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하트해변은 KBS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해변이 하트모양을 닮아 하트해수욕장으로도 알려져 있어 연인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주변 기암절벽 등 빼어난 풍광은 물론 사철 물결이 고요해 힐링을 원하는 가족 단위의 휴양코스으로도 그만이다.

환상의 정원은 지난 2022년 도초 화도항에서 수국공원 인근까지 조성됐다. 수국 축제가 열리는 여름에는 도초도 인구(2800여 명)의 5배가 넘는 여행자들이 섬을 찾는다고 한다.

수국공원은 도초 1호 보물도 통한다. 2005년 폐교됐던 도초초등학교 부지에 수국 꽃을 테마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조성했다. 전통정원, 수국정원,

소리마당, 웰빙정원 등 다채로운 주제원으로 구성돼 있다. 수국, 산수국, 나무수국, 불두화 등 15종, 3만 여주의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

신안군은 자전거 동호인에게 신안의 매력을 알리고 레저스포츠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열고 있다.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1차 행사는 증도에서

열렸고 2차 라이딩은 안좌면(안좌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한편, 대회 주최측은 이번 대회 참가 기념품을 비롯해 경품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자전거 용품 등을 제공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종국, 변화의 칼 뿜었다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이 반등을 위해 변화의 칼을 뽑아들었다.

30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KIA가 대대적인 엔트리

변동을 단행했다. KIA는 앞서 지난 29일 5명의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선발 앤더슨과 마무리 정해영을 포함해 좌완 사이드암 김대유, 내야수 황대인, 윤도현을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그리고 이날 우완 김재열·황동하, 좌완 광도규, 내야수 김석환·최정용을 불러들였다.

KIA는 지난 28일 LG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올 시즌 42번째 경기를 소화했다.

이날 KIA는 선발 앤더슨이 3이닝 3실점에 그치는 등 선발싸움에 밀려 1-7 패배를 기록했다. 앤더슨이 5월 4경기에서 16.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지만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하는 등 부진이 계속되면서 KIA는 재정비 시간을 주기로 했다.

시즌 초반에는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앤더슨은 최근 공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은 "한 턱 쉬는 느낌으로 퓨처스 리그에서 토요일 경기에 출전시킨 뒤 풀업할 예정이다.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많은 이닝을 던져본 적이 없어서 한 턱 쉬는 느낌이다"고 말씀을 설명했다.

정해영도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됐다. 마무리 정해영은 지난 28일 0-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랐다. 낙담한 정수 차에서 부담 없이 던지도록 판을 깔아줬지만, 이날도 정해영은 볼넷을 기록하는 등 갈급한 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올 시즌 20경기에 나온 정해영은 18.1이닝을 소화하면서 22피안타 7볼넷 9탈삼진 8실점(7자책

KIA 대대적 엔트리 변동
투수 앤더슨·정해영·김대유
내야수 황대인·윤도현 말소
투수 김재열·황동하·광도규
내야수 김석환·최정용 등극



김석환

점)으로 3.4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피안타율이 0.297, 이닝 당 출루허용률도 1.58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이어왔다.

김종국 감독은 "마무리를 딱히 정하지 않았지만 집단 마무리로 준비하겠다. 최지민, 임기영, 장형식, 이준영이 될 수도 있고 박준표까지 필승조로 들어가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상대 타자에 맞춰 운용할 생각이다"며 "선발은 토요일에 비어있는데 김우신, 황동하, 김재열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그날 선발로 올릴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8일 처음 1군에 등극돼 프로데뷔전을 치렀던 내야수 윤도현은 부상으로 하루 만에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지난 시즌 시범경기에서 손등 골절 부상을 당해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윤도현은 올 시즌 내야 기대주로 주목 받은 '고졸 2년차' 선수. 하지만 올 시즌 전에도 허벅지 부상으로 잠시 쉬었던 윤도현은 5월 3일 KT전을 통해 퓨처스리그에서 시즌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부상 이력이 있던 만큼 차분하게 윤도현을 지켜봤던 KIA는 28일 마침내 풀업을 결정했지만 햄스트링 부상 탓에 다시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지난 시즌 시범경기에서 손등 골절 부상을 당해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윤도현은 올 시즌 내야 기대주로 주목 받은 '고졸 2년차' 선수. 하지만 올 시즌 전에도 허벅지 부상으로 잠시 쉬었던 윤도현은 5월 3일 KT전을 통해 퓨처스리그에서 시즌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부상 이력이 있던 만큼 차분하게 윤도현을 지켜봤던 KIA는 28일 마침내 풀업을 결정했지만 햄스트링 부상 탓에 다시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김대유의 경우 제구력, 자신감 찾기가 숙제가 될 전망이다. 황대인도 퓨처스리그에서 경기를 뛰게 하면서 경쟁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국 감독은 "스윙 매커니즘이 본인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다. 수싸움도 안 되는 모습이다.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 1군 출장을 보장 못해줄 것 같아서 퓨처스에서 꾸준히 많이 뛰어보게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시즌 끝내고 귀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시즌을 마친 손흥민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U-20 월드컵, 브라질-아르헨티나 결승 대결 전망

베팅업체, 우승 확률 예상

16강 상대 한국-에콰도르 '비숫'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외국 베팅업체들은 '영원한 라이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결승 맞대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벳365라는 베팅업체의 이번 대회 우승 배당률을 보면 30일 오전 현재 브라질이 4.33-1로 가장 확률이 높고, 아르헨티나가 4.50-1로 2위다. 또 레드브룩스라는 베팅업체의 경우 브라질 우승 배당률 2.5-1, 아르헨티나 4-1로 역시 우승 확률 1.2로 예상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벳365에서 16강

에 오른 나라 가운데 공동 10위, 레드브룩스에서는 11위로 평가됐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FIFA 주관 남자 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은 4년 전 이 대회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16강 상대인 에콰도르는 한국과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됐다.

벳365는 우승 확률에서 한국과 같은 공동 10위로 평가했고, 레드브룩스는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10위로 우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다만 한국과 에콰도르 경기만 놓고 보면 에콰도르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됐다.

윌리엄 힐은 에콰도르 승리 배당률 0.95-1, 한국 승리 배당률 2.3-1을 예상했다. /연합뉴스